

조선 후기 사회구조의 변화가 주거공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경기지역 중상류 주거의 안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Spaces and Social Structure in Latter term of Chosun Period

- Focused on main houses of higher middle class in Gyeonggi province -

박형진* / Park, Hyung-Jin

류호창** / Lyu, Ho-Chang

Abstract

Residential space can be stated as a decisive body compositely affected by environmental, physical,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Resulting from this idea, residential space can be defined as a mirror reflecting peoples' life at that perio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a certain era through analyzing the residential space built and used at that period.

Viewing from this point, latter term of Chosun Period, as a transitional period, was a time of collapse for the structure of middle-class society forcing its identity system to be reorganized, and of improving upon commerce, agriculture, and manual industry to enable modernization. Following this idea,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higher middle class residences built at the close of 19th century in Gyeonggi province in order to bring into light the change of social structure of the period.

키워드 : 사회·문화적 환경, 안채, 근대화, 근대 중상류 주거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삶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주거공간은 삶의 그릇으로서 생활 전반을 담고 있다. 따라서 주거공간은 환경적, 물리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으며 최선의 선택으로 진화되어온 결정체이다.

아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는 주택은 단지 구조물이 아니고 복합적인 일련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의 관례(institution)이며,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문화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형태의 조직은 그것이 속한 문화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주거형태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어느 하나의 요소에 의한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문화적 요소의 산물이라는 것이다.¹⁾ 또한 문화인류학자인 이시게 나오미찌(石毛直道)는 주거형태의 결정에 관한

이론에서 주거형태는 한 사회의 총체적인 문화적 요인의 산물이며, 시간과 공간이 흐르며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상태의 것이라고 하였다.²⁾ 이와 같이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주거공간을 파악할 수 있고, 역으로 특정시대의 주거공간을 이해함으로써 당시의 사회, 문화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선 후기는 중세적 사회구조의 붕괴로 신분제도가 재편되고, 상업적 농업·상공업·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근대화의 틀을 형성한 과도기였으며,³⁾ 한국 근대건축의 형성기이기도 했던 의미 있는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공간의 근대화 과정과 당시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하였다. 이것은 곧 전통 주거공간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을 의미하고, 사회, 문화적 환경

1) Amos 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주거형태와 문화, 이규목 譯, 열화당, 1985, pp.72-119.

2) 石毛直道, *住居空間の人類學*, 鹿島出版會, 1971, pp.182-184.

3) 한국경제사학회(조기준), *한국사시대구분론(한국사에 있어서의 근대의 성격)*, 을유문화사, 1995, pp.183-211.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졸업

** 이사, 건국대학교 조형대학 실내디자인학과 부교수

요인을 수용하여 합리적 주거공간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부족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현대 주거공간의 정체성 상실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례 조사를 통해 조선 후기 중상류 주거를 중심으로 당시 사회구조의 변화가 주거공간의 변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는 조선 후기에 이어진 경기지역의 중상류 주거로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경기지역으로 한정된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이 중앙집권적 사회의 특성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대외 무역을 통한 상공업이 일찍이 발달하고 수공업과 상업적 농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은 농민층을 빠르게 분화시켰고, 기존의 양반 주택뿐만 아니라 후기에 등장하는 신흥 양반 세력의 주택까지 이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⁴⁾ 따라서 경기지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배경과 중상류 계층의 다양성은 조선 후기 사회구조의 변화와 중상류 주거공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사회구조의 변화가 주거공간의 변천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조선 후기의 사회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중세적 신분제도와 농업사회구조의 변화에 관한 문헌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당시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되는 경기지역의 후기적 건축 현상에 대한 정보를 문헌과 도면을 통해 수집하여 사례조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사례조사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조선 후기 주택 중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사례를 선정, 분석하였는데, 경기지역 주거공간의 특성을 근거로 당시 사회구조를 가장 많이 반영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안채, 뒷마당, 안마당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안채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뒷마당과 안마당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전통 주거에서의 마당은 단순히 외부적 공간이라기보다는 내부공간과의 연계에 따라 실내의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채의 구성형식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안방이 대청을 중심으로 건넌방과 연결되어 중심이 된 반면, 후기에는 부속채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당이 중심이 되어 가사의 일을 통괄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인한다.⁵⁾

현장조사 결과는 사전에 문헌을 통해 조사된 사회구조적 변화요인과 주거형태의 변화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전체된 이론을 실증해보려 하였다.

2. 사회적 변인과 주거형태

2.1. 신분질서의 와해

(1) 양반계층의 몰락과 분화

조선 초기에는 정권의 안정과 더불어 양반 수의 강력한 통제를 통해 양반 사회 전체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극심한 당쟁을 통하여 집권 세력의 범위는 점차로 좁아져 별업을 형성하게 되었고,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의 양란을 겪은 17세기 이후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현상과 더불어 권력에서 밀려난 양반 세력들의 계층 분화가 진행되었다.

집권층에서 탈락한 양반은 향반 또는 토반이 되어 지역 사회의 실권을 쥐고 어느 정도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대열에 끼지도 못해 사회, 경제적 기반을 전혀 갖지 못한 몰락 양반들은 자영농으로 전락해서 농민이 되거나 혹은 상공업으로 전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일부는 민란의 지도자가 되어 조선 왕조의 혁신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실학자, 농촌 지식인을 자처하며 농촌 사회의 힘 없는 존재로 도태되었다.⁶⁾

조선 후기의 중상류 주거는 순조 즉위 시부터 시작된 문벌 정치체제에 의해 권력을 잡은 중앙의 세도가층, 정계로 진출한 사대부층, 권력에서 소외되어 지방에 안주한 향반층, 상민에서 부를 축적하여 양반의 신분을 획득한 부농층의 주거로 분류된다.⁷⁾ 양반계층의 주거공간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다.

유교이념에 의해 지배되고 유교적 의례를 위한 공간이 크게 발달하였던 초기의 모습과는⁸⁾ 달리 조선 후기의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부농계층의 주거는 경제적 요소에 의해 발전 방향이 결정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세도가층과 사대부층의 주거의 경우는 전체적인 모습에서 이전의 주거와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지 않으나, 점차 실용적인 모습으로 변천하게 된다.

(2) 중간계층의 성장

조선 초기의 법제적 신분은 양인과 천인으로 규정되었지만 점차 분화되어 16세기경에는 양반, 중인, 평민, 천인으로 계층이 형성되었다. 조선 후기 들어 중간계층의 존재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조선시대의 중층적 신분구조 사이의 지배, 수탈, 착취의 구조 속에서 만들어졌고 체제로부터의 승인, 목인을 받고 있었다. 조선 후기 사회의 혼란과 신분제의 동요 속에서도 매우 안정된 구조였던 것으로 추측되며 자본주의의 맹아적인 형태의 출현과 함께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점차로 상승시키며 양반 이상의 특권을 누리기도 하였다.⁹⁾ 갑오

4)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의 어제와 오늘, 경기출판사, 2001, pp.66-127.

5)김중현·주남철, 한국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2호, 1996.2, p.87.

6)김영모, 조선지배층연구, 한국문화연구소, 1977, pp.35-67.

7)최일, 조선 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pp.20-21.

8)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3, pp.155-181.

경장 이후 신분 계급이 철폐되어 민간주택 가사규모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경제계급과 신분계급 사이에 불일치를 보이던 중인계급의 부호들은 상류주택의 격식과 치장을 모방하거나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의 공간들을 추구하게 되었다.¹⁰⁾

(3) 농민계층의 분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농민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었으며, 특히 임진왜란의 피해로 전국 경작면적이 1/3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민들의 이농이 급증했으며 농촌 사회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비록 조선 후기 모내기법의 발달, 광작농업의 발달, 상업적 농업의 발달로 인하여 소수의 농민이 부농층이 되었지만, 많은 농민이 토지를 이탈하여 농민 분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¹¹⁾

조선 후기 농민계층의 분화는 상반된 양극화 현상을 띄게 된다. 상층의 일부가 부농층으로 성장해 가는 한편 대부분의 농민들은 종래와 같은 양반 지주층의 소작농의 위치에 머물거나 일부 부농층의 성장에 희생되면서 농업 노동자로 전락해갔다. 부농층은 조선 후기의 농민 분화 과정에서 형성된 하나의 새로운 계층으로, 경우에 따라 양반 관료층의 비호 아래 경제적 이윤 증대를 도모하면서 영세 농민층 및 빈농층에 대한 수탈자의 위치에 있기도 했다.

종래의 유교관습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사대부층의 주택과 달리 농민에서 성장한 부농주거의 경우, 농경사회의 민가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 논리에 의한 합리적인 주거문화를 형성하며, 양반 계급 지향적인 그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과시적인 형태가 외부로 표현되기도 한다.

(4) 노비계급의 해방

조선 초기의 노비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존재하던 제도로 신분해방의 길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노비의 신분 해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선 후기 노비의 격감 현상은 양반층의 경제력 및 가사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지주, 전호제를 기본 골격으로 노비에 의해 운영되던 농업의 경영패턴이 소작제도로 보편화되었다. 양반층은 농업경영주의 입장으로 성격이 전환되었고 가사 운영도 노비에 의해 운영되던 것이 가족단위의 운영으로 전환되었다.¹²⁾

농경사회의 노동력 감소로 요약되는 이러한 현상은 중상류 주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노비의 감소는 여성 노동력의 가중을 초래하였고 주거문화의 큰 흐름이 노동력 절감이라는 근대화 현상¹³⁾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른 직접적 대응으로

행랑채가 소멸하고 대신 문간채로 약식화 되며, 부역이 발달하게 되고, 검집화 현상이 두드러져 주거전체에서의 이동 동선이 짧아진다. 부속채들은 생활의 중심 장소인 안채와 연관되어 안마당을 중심으로 건립되는 현상을 보인다.¹⁴⁾

2. 사회구조의 변화

(1) 상품화폐경제와 상업의 발달

조선 초기에는 농본주의, 역상주의, 쇠국주의 정책으로 상품경제의 발달이 극히 저조했으며, 자급자족의 경제원리가 지배했기 때문에 저화, 동전과 같은 화폐의 유통은 불가능했고, 쌀, 포목 등의 실물화폐를 매개로 해서 교환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복구 과정을 통한 생산력의 향상으로 상품경제가 발달하여 금속화폐가 유통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다. 외국에 대한 민간무역이 어느 정도 열리면서 도시의 상업인구가 증가하여 유통경제가 활기를 띠어갔고, 관청수공업체제가 약화되는 대신 민간수공업이 발달하였다. 또한 일부 농촌수공업이 농업에서 분리되고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여 시장경제가 활기를 띄게 된다.

조선 후기 농업, 상업의 발달과 상품경제의 발달은 중세적 신분체제와 생산구조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종래의 관아도시가 상업도시로 변모하고 농촌지역에서도 일부 부농계층의 상업자본의 축적이 가능해졌다. 도시의 상품화와 고리대의 발달은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농민의 계층분화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와 농촌에서의 새로운 자본가 계급의 생성을 의미하며 그들의 주거공간에서도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에 경제문제는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이런 흐름은 건축에도 나타나서 집을 짓는데도 경제원칙이 우선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부재를 적게 사용하면서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조적으로는 더 안정된 방안이 모색되었으며, 이러한 구조의 간략화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보편화되고 19세기 중반에 가서는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¹⁵⁾

(2) 수공업의 발전

조선 시대에는 원칙적으로 관직에 나가지 않은 모든 인원이 나라를 위한 부역의 의무가 있었다. 장인들도 이런 국역제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관청 수공업장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임금을 받지 않고 관청 수공업장에 부역 동원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왕조의 지배체제가 약화되고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방대한 관청 수공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장인들이 등록제에 의한 부역동원을 기피하여 장인 등록제는 16세기에 벌써 일부 무너져갔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관청 수공업장에 교대로 부

9) 안병태, 한국 근대경제와 일본제국주의, 백산서당, 1982, p.163.

10) 홍형욱, 한국주거사, 민음사, 1997, p.278.

11)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I], 지식산업사, 1995.

12) 최일, 앞의 논문, p.21.

13) 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87, pp.289-291.

14) 최일, 앞의 논문, p.21.

15) 김동욱, 앞의 책, pp.254-257.

역 동원되던 장인은 부역제에서 벗어나 임금기술자로 고용되었고 수공업장에서 풀려난 장인들이 상품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관장제 수공업의 몰락과 사장제의 성장은 건축의 생산구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선 초기의 건축은 관장제에 의한 통제체제의 강화로 전문적 기술자를 관에 예속시키고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하여 대부분의 민간건축은 자급자족적으로 행해짐으로써 중앙과 지방, 권위건축과 민간건축의 기술적 격차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중세적 이중구조로서 특징 지워진다.¹⁶⁾ 이러한 상태에서 조선 초기의 민간건축은 당연히 정제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조선 후기의 건축은 이러한 이중구조가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현상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16세기 이후의 건축의 중심은 이전의 정부의 궁궐 및 관아 건물에서 사대부층과 지방의 사림세력의 저택 조영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18세기 후반에 들어오면 관장(官匠)이 거의 사라지고 궁궐과 같은 관건물 공사에도 이들 민간장인이 도편수를 맡게 된다. 건축구조가 간략화 되고 민간장인이 자유로이 여러 계층의 건축 활동에 참여하면서 18세기 후반 이후 건축은 중앙의 고급건축이나 지방의 주택에 이르기까지 건축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질, 즉 가구의 결구방식과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공간의 구성내용이 큰 격차 없이 보편화되었다.¹⁷⁾ 상류계층의 주거건축에 관여하였던 수준 높은 관장의 민간건축의 참여는 상류계층 주거양식의 하향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3. 사례 조사 및 분석

3.1. 사례 선정 및 조사 대상

사례 선정은 경기지역의 주거 중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19채를 1차 대상으로 하였다.¹⁸⁾ <표 1>

<표 1> 경기지역 문화재 지정 가옥(현장 조사 가옥)

지정단체	구분	NO	가옥명	소재지	설립연도	특징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	123호	이병원	수원 장안 피장	190중	ㄱ자형의 안채	
		124호	정용채	화성 서신 궁평	1887	木造瓦家·日字形	
		125호	박희석	화성 서신 궁평2	1899	草家·ㄷㄱ字形	
		126호	김영구	여주 대신 보통	1860	ㄱ字形	
		127호	어재연	이천 울면 신성	190초	草家·안채ㄱ字形	
		128호	백수현	양주 남면 매곡	190후	ㄷㄱ字形	
		129호	여경구	남양주 진천 내곡	180중	木造瓦家·日字形	
		130호	공진	남양주 평내	180후	木造瓦家·ㄷ字形	
		2호	오춘환	양성 양성 덕봉	180초	木造瓦家·ㄷ字形	
		3호	정영대	용인 원삼 문촌	1753	木造瓦家·ㄷ字形	
	경기민속자료	46호	명성황후	여주 여주읍 능현	190후	건물1동	
	시도 지정	유형문화재	106호	이항로	양평 서중 노문	190중	안채·사랑채
			5호	김병호	양평 용문 오촌	1893	木造瓦家 1동
경기민속자료		6호	정원채	화성 남양 송림	190후	木造瓦家 1동	
		7호	김희석	양평 양평 정대	190초	木造瓦家 1동	
		32호	최중외가	강화 선원 냉정	1860	안채, 사랑채, 행랑채	
		55호	이천보	기평 삼면 연하	1867	木造瓦, 판지지붕	
		73호	이해룡	양성 서문 청룡	1797	木造瓦家, ㄷ지형	
		74호	홍승인	화성 정남 문학	190후	木造瓦家	

16) 이상현, 180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건축의 변천에 대한 사적 고찰, 서울대석론, 1984, p.22.

17) 김동욱, 앞의 책, p.258.

18) 송주현, 문화재로 지정된 전국 주택건조물 현황, 대한건축학회지 33권 2호, 1989.3. pp.58-71.

이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건립된 중상류 주거이며,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당시 경기지역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안채나 사랑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이천보, 백수현, 오춘환, 김병호, 명성황후생가), 원형이 심하게 변형된 경우(이병원, 어재연, 이항로생가),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궁집)를 제외하고 연구 주제에 따른 선정기준 <표 2>에 적합한 8채에 대하여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2> 사례 선정 기준

보존 상태	사랑채와 안채가 온전히 보존되어 당시의 주생활을 반영할 것
시대적 범위	조선 후기(1800년경을 전후한 시점 - 20세기 초)
계층적 범위	조선 후기 양반계층이며 경제적 지배계층의 중상류 주거

선행 연구를 통해 보면 중부형 민가는 'ㄱ'자형의 안채를 기본으로 부속채가 부가되어 큰 'ㄷ'자형의 배치로 완성되며, 이에 따라 각 마당의 분화가 이루어진다.¹⁹⁾ 주거공간의 근대화 현상과 관련하여 여성 중심의 공간인 안채와 뒷마당, 안마당은 당시 사회구조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따라서 현장조사는 안채, 뒷마당, 안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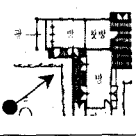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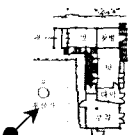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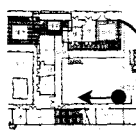

본 논문의 초점이 안채를 중심으로 한 주거공간에 주어졌지만, 뒷마당과 안마당을 함께 비중 있게 조사한 것은 전통주거에서 마당은 단순히 외부공간으로 볼 수 없으며, 내부공간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유지하여 반 내부공간화 된 의미와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조선 후기의 안채의 구성형식이 안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안채와 함께 부속채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²⁰⁾

3.2. 사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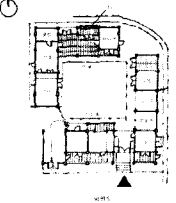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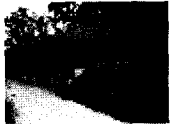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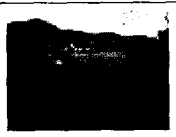
19) 조성기, 한국 중부형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7권3호, 1991.6, p.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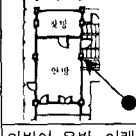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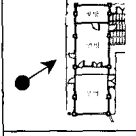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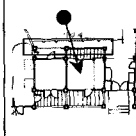

20) 김중현, 주남철, 위의 논문, p.87.

특징		분석
안채	 	조선 후기 신분제도의 의해 과정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안채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살림채와 행당채의 존재로 보아 당시에 많은 수의 노비와 노동자들을 보유한 것으로 추측된다.
뒷마당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노비의 감소는 농촌 상류계층에서도 가족간의 노동력 증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로 뒷간이 발달하고 부엌의 동선이 짧아지고 집중된다.
안마당	 	안마당의 폐쇄성이 존재하고 안채와 사랑채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은 전시대의 주택 조영 원리가 19세기 말엽까지도 계속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前)시대 사대부가의 안마당의 폐쇄성이 보인다.

사례2. 박희석 가옥(중요민속자료 125호, 1899년)

 (출처: 주남철, 위의 책, 2000)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해안에 위치하지만 폐쇄적이지 않고 전형적인 경기지역의 큰모자형의 주택이다. 정용채 가옥(사례1)의 언덕 아래에 위치하며, 넓은 논과 바다(500m전방)가 위치하여 농업과 어업으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대문채(사랑채) 전경
		 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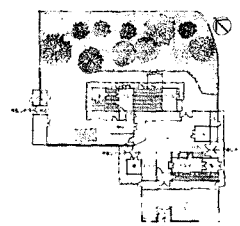


특징		분석
안채	 	부농주거에서 나타나는 방의 분화, 확장 현상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사회의 변화된 환경을 의미한다. 즉, 상업적 농업, 상공업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일반 농민이 주거공간을 확장, 분화시킨다.
뒷마당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경우, 가족 구성원이 직접 가사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이전의 농민 생활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안마당	 	바깥채에 외부인이 거주함으로써 안마당이 발달하지 못하고 외부인과 안주인과의 시각적 단절을 유도하기 위한 벽체가 존재한다. 안주인의 공간은 안마당에서 뒷마당을 밀려나게 된다.

안방이 옷방, 아랫방으로 분화되며, 옷방은 수장 공간으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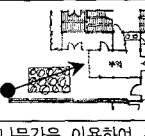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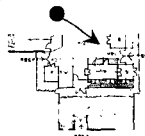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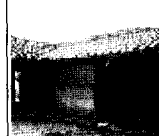
여성의 노동 공간이 뒷마당으로 집중 배치되었으며, 이것은 문간채의 거주인이 외부인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사랑채에 벽체를 설치하여 안마당으로의 출입을 제한한다.

사례3. 정원채 가옥(경기민속자료 6호, 19세기 말엽 건립)

 (출처: 경기도,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1997)	 사랑채 전경
	 마을 전경

전체구성은 T자형의 안채와 사랑채가 마주 보고 가운데 안마당을 이루는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 각각의 평면은 쓰임새에 알맞게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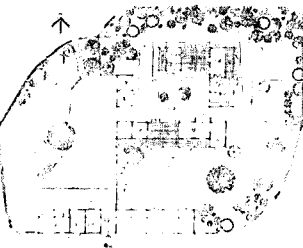


특징		분석
안채	 	조선 후기의 농업을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전형적인 부농주거로서 경제 활동과 생활의 필요에 따라 공간의 확대와 분화가 발생한다.
뒷마당	 	계승 분화와 관련하여 가사노동 공간의 발달은 전체적인 주거문화의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었다. 특히 부농주거에 있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노동력의 부족이 심화되면서 가사노동의 질감을 위한 합리적 동선계획이 절실했을 것이다.
안마당	 	전통적인 사대부가의 주택조영 방식이 유교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들의 주택조영 방식은 근본적으로 부를 축적한 경제 원리와 편리한 생활 방식의 추구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현되는 주거양식은 전통적인 양반 주거의 모습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공간의 확장 요구에 따라 안방의 왼쪽으로 마루와 광이 설치되어 안채의 평면이 전체적으로 T자형을 이루게 된다. 안방, 건넌방은 뒷간까지 방을 확장하여 많은 가족을 수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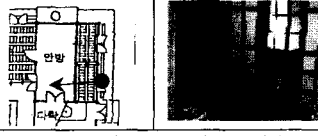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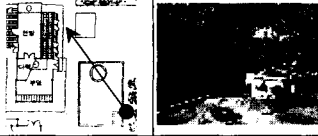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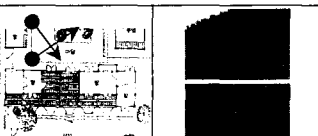
나뭇간을 이용하여 부엌의 외부 공간을 내부화하였다. 확장된 부엌과 광을 연결하여 가사노동 공간을 확보하였다. 확장된 부엌/광의 영역은 뒷마당의 장독대와 우물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동선의 단축을 꾀하고 있다.

사랑마당과 안마당이 분리되어 있으나 이전의 시대부 주택의 안마당의 폐쇄적인 성격과는 달리 안마당이 오히려 집의 얼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랑채에서 안마당으로의 출입이 자유롭게 계획되어 있어 안마당을 중심으로 생활동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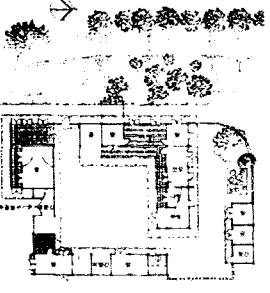


사례4. 흥승인 가옥(경기문화재자료 74호, 19세기 말엽 건립)

 (출처: 경기도, 위의 책, 1997)	 진입부 전경
	 안채

마을 주변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건립 당시에 부농의 주거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랑채는 서당의 역할을 겸하여 매우 크게 지어졌다. 행랑채와 사랑채, 안채 그리고 각 공간의 마당과 출입구는 전통적인 상류주택의 규범을 따르고 있으며, 대청과 뒷마루에 모두 분합문을 달아 서울, 중부지방의 사대부가의 고전적인 형태를 모두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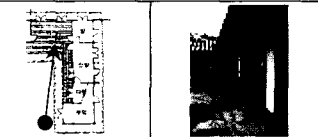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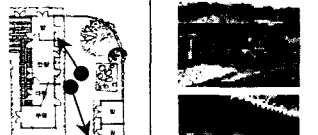
특징		분석
안채		안채에서의 뒷간을 이용한 가구(家具)의 수납과 수장 공간의 확보는 하나의 실을 합리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하려는 합리적 주거사상의 일반적 현상이다. 수장고의 증가 현상은 부농주거의 부의 축적과 관계가 깊다.
뒷마당		커다란 행랑채는 조선 후기 노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많은 노비들을 소유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안마당		살유주택의 격식을 따라 행랑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뒷마당 등이 화됨에도 불구하고 생활공간의 중심이 안마당으로 집중되는 것은 큰 대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간의 집중화는 직계가족제도의 발달에 따른 남녀유별사상의 약화와 합리적 주거사상의 발달에 따른 동선의 단순 현상과 관계가 깊다.
각 마당이 분화되며, 안마당이 생활의 중심공간이 된다. 안채의 기단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모든 방향에서의 출입이 편리하다. 사랑대청에서 안마당으로 출입이 편리하도록 쪽마루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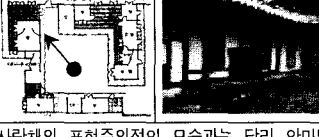
경기도, 정음대 가옥(경기민속자료 7호, 19세기 초엽 건립)

		진입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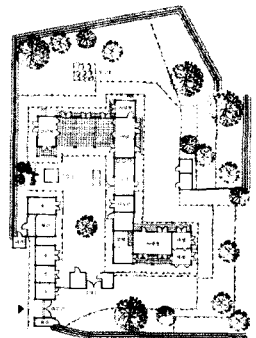


(출처: 경기도, 위의 책, 1997)

약 200여 년 전에 지어진 집으로, 조선 후기 경기지역의 전형적인 부농주거의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툇치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ㄱ자형의 안채를 중심으로 서남쪽 바깥으로 사랑채가 있고 그 옆으로 대문간이 있다. 강에 의한 경제, 부의 축적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징		분석
안채		경기지역의 전형적인 농촌 부농 주거로서 경제 활동과 생활의 필요에 따라 공간의 확대와 분화가 발생한다.
안방은 한 칸의 옷방과 두 칸의 아래방으로 나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어 기능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엌, 대청, 건넌방에까지 뒷마루가 놓여 있어 복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		
뒷마당		안마당이 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등장하면서 여성의 노동 공간이 뒷마당으로 밀려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부농주거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노동력의 부족이 심화되면서 가사노동의 절감을 위한 합리적 동선계획이 절실하였을 것이다.
안채와 안채 뒤의 부속광 사이에 뒷마당이 형성되어 가사노동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난다. 안방과 뒷마당, 부엌, 우물, 장독대, 부속광이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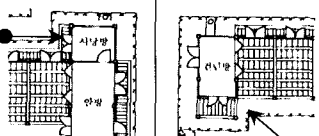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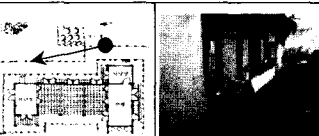

안마당		안마당의 발달은 직계가족 중심의 생활에 따른 남녀유별 사상의 약화를 의미하며, 동선의 단순화 노력의 결과이다.
사랑채의 표현주의적 모습과는 달리 안마당은 가족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사랑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사랑채에서 안마당으로 출입이 용이하도록 뒷마루를 설치하였다.		

시래6, 정음대 가옥(전통건축조사 3호, 1753년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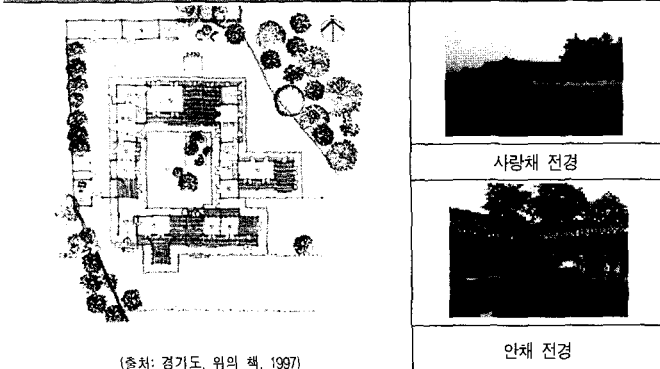
		진입부 전경
		중대문간에서 본 안채

(출처: 주남철, 위의 책, 2000)

건립자는 훈련대장 오백 이주국(1721-1798)이다. 안채와 부속광의 규모로 보아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채는 곱은지형 평면으로 되어 있고 대청마루는 길보 5량으로 4칸 반의 커다란 공간을 형성한다. 옆방은 1고주 5량으로 되어 있다. 또한 안방의 뒤편으로 사당을 설치한 예는 매우 특이한데, 건넌방이 안마당 쪽으로 반 칸 돌출하여 누마루 형식을 띠고 있는 것과 더불어 공간의 요구에 의한 평면의 파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징		분석
안채		이 집은 전통적인 유교 규범이 따라 지어진 집이다. 따라서 각 채와 마당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형식의 편차가 일어나고 있다. 사당방이 안방 뒤에 붙는 매우 특이한 형식을 취하며 특히 건넌방의 누마루는 이 방에 남자가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안방 뒤에 사당방을 배치하고 건넌방을 안마당 쪽으로의 반 칸 확장한 것은 특이한 예이다. 이러한 방의 확장, 분화 현상은 사랑채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18세기 이전의 사대부가에도 생활의 필요에 의한 공간의 확장과 분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뒷마당		조사 대상 가옥 중 유일하게 뒷마당의 발달이 눈에 띄지 않는 경우였다. 설립연대가 비교적 이르고 지역적으로 남부지방의 주거 형식의 영향을 받아 뒷마당이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사활동은 안마당과 부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뒷마당에는 장독대가 위치하고 있다.		
안마당		안마당에서 가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사랑채 영역이 집의 얼굴 역할을 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대부의 조영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물이 안마당에 위치하고 장독대가 뒷마당에 위치하여 가사활동 영역이 분산된다.		

사례7. 김현우 기러기마을(경기도, 김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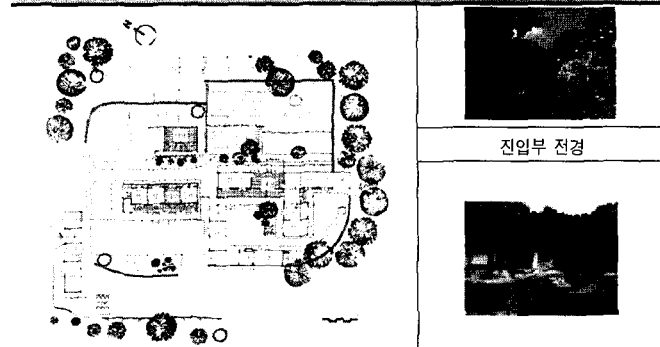
(출처: 경기도, 위의 책, 1997)

이조판서를 지낸 조석우가 건립(1810년 출생)하였다고 전해진다. 현재 사랑채 앞에 뒷마당이 있고 축대가 놓여져 있으나, 원래는 축대가 없는 완만한 경사지였다고 하며 축대 자리에 원래 솥을 대문이라 존재하였고 그 양 옆으로 행랑채가 있었다고 한다. 행랑채는 약 60년 전에 없어졌다고 한다.

안채는 경기지역의 유형을 따르면서도 전체적으로 폐쇄적인 산간지역의 □자형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서쪽의 출입구는 원래 협문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며, 안마당의 화단은 최근에 조성되었다고 한다.

특징	분석
<p>안채</p> <p>안방은 한 칸의 옷방과 두 칸의 아랫방으로 나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어 기능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p>	<p>경기지역의 전형적인 세도가층의 주거로서 경제 활동과 생활의 필요에 따라 공간의 확대와 분화가 발생한다.</p>
<p>뒷마당</p> <p>안채의 뒤편으로 넓은 면적에 가사노동 공간으로서 뒷마당이 발달한다.</p>	<p>당시의 세도가주택은 많은 수의 노비를 거느렸던 것으로 추측된다. 부역은 상당한 크기로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p>
<p>안마당</p> <p>사대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채와 안마당의 긴밀한 연관성이 보인다.</p>	<p>경기지역 부농주택의 후기적 경향이 조선 후기(1860)의 사대부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마당은 가족생활의 중심 공간 역할을 하며 사랑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p>

사례8. 여경구 가옥(중요민속자료 129호, 18세기 중엽 건립)



(출처: 주남철, 위의 책, 2000)

이 집은 돌리에서 연안 이씨의 동관택이라 부르는데, 소유주 여경구의 장인 이덕승 8대조가 지었다고 구전되는 집이다.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아 많이 퇴락한 상태이다.

안채는 T자형 평면으로 건넌방, 대청, 안방, 부엌의 T자형 평면에 안방 옆으로 대청과 반대 방향으로 2개의 방과 광이 붙어 있다. 전형적인 사대부의 주택으로 전통적인 조영방식에 의해 지어졌으며, 경기지역의 후기적인 현상이 잘 나타나 있는 주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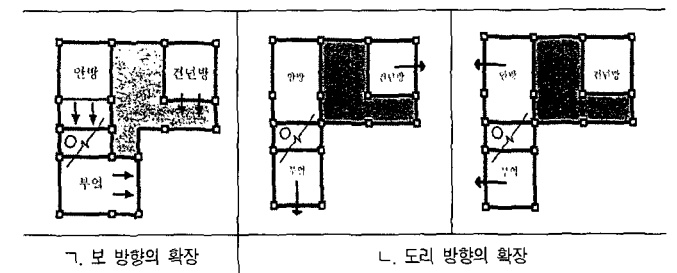
특징	분석
<p>안채</p> <p>안채가 뒷마당 방향으로 분화·확장하여 T자형 평면을 이룬다.</p>	<p>도리방향으로 공간이 확장, 분화하며, 한 동(棟)에서 여러 기능을 해결하는 것은 근대적 주거사상의 표현이다.</p>
<p>뒷마당</p> <p>뒷마당이 발달하여 가사노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p>	<p>가사 노동 공간의 발달은 노비의 감소 현상과 관계가 깊으며 사대 부가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주택에서 뒷마당은 노동력의 집중 현상뿐만 아니라 여성의 독립된 공간으로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p>
<p>안마당</p> <p>전통적인 사대부의 주택 조영 원리에 따라 안채와 사랑채는 독립적이며, 안마당은 폐쇄적인 공간구성을 이룬다.</p>	<p>안마당이 폐쇄적인 구성을 하면서 동시에 뒷마당이 독립적으로 발달한다. 뒷마당의 발달은 경기지역 중상류 주거의 전반적인 특징이다.</p>

3.3. 분석 결과

(1) 공간의 확장 and 분화

조선 후기 경기지역 중상류 주거의 안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의 확장과 분화로 요약된다. 기술의 발달로 이룩된 공간의 규모는 확장되고 확장된 공간의 기능은 분화한다.²¹⁾

남부지방에서는 보 방향의 겹집화를 통하여 공간이 확장, 분화하는 반면에,²²⁾ 경기지역 중상류주택의 경우에는 뒷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도리 방향으로 실의 확장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인 T자형의 평면 형태에 길이 방향으로 실을 부가하는 방법이다.<그림 1>



<그림 1> 공간의 확장(안채)

공간의 확장 현상과 함께 조사 대상 가옥의 대부분에서 뒷간을 이용한 공간의 분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나의 동(棟) 안에서의 주생활의 완결화 경향, 뒷간을 이용한 수장 공간의 발달, 기능의 분리에 따른 안방의 옷방과 아랫방의 분화 현상, 건축기술의 발달로 고도화된 건물의 상하 분화현상이 나

21) 김홍석, 민속건축론, 한길사, 1987, p.230.

22) 이강민, 초기근대 전남지역 부농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론, 2001.

타나게 된다. 공간의 분화 현상은 보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함으로써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주택의 근대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가옥의 안채의 가구(架構) 형식은 대부분 1고주 5량이다. <표 3> 이는 가장 기본적인 3량 가구에서 발전된 형태로 뒷간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²³⁾ 홑집 → 뒷집 → 겹집으로 평면이 변화·발전해간다고 하였을 때 퇴가 형성·변화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간의 확대 요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²⁴⁾

<표 3> 안채의 가구 구조

가옥명	가구 구조(안채)	
	대청	안방
정용채	긴보5량	1고주5량
박희석	긴보5량	1고주5량
정원채	긴보5량	1고주5량
홍승인	긴보5량	1고주5량
김정식	1고주5량	1고주5량
정영대	긴보5량	1고주5량
김영구	긴보5량	1고주5량
여경구	긴보5량	1고주5량

조선 후기 건축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겹집화 현상이다. 이러한 겹집화 현상은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경제 규모가 큰 집일수록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²⁵⁾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주거는 동(棟)의 분화를 통해 주거의 확장 분화라는 기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 후기에는 하나의 건물에서 주거생활을 완성하려는 근대적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당시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급변하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조선 후기 신분제도의 붕괴로 인한 노비의 급감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사 운영의 체제가 노비에 의해 운영되던 것이 가족 단위의 운영으로 전환하게 되고 노동력의 급감 현상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노동력 요구가 전반적으로 가증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주거문화의 발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하나의 동에서 기능을 수용하고 동선의 단축화를 취할 수 있는 겹집화의 경향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당시의 인구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후기의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수리관계 시설의 확대와 농지확산, 농법 개량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양법의 발달은 높은 토지생산성을 가져오게 되어 광작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기존의 파종법에 비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농법이였다.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직계가족에 의한 농경사회에서 가족수의 증가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한 동(棟) 내에서의 겹집화, 분화현상은 가족

내에 인구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적 해결 방법인 것이다.²⁶⁾

셋째로 조선 후기의 관장(官匠)이 몰락하고 사장(私匠)이 활성화된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사장의 활성화로 수공업자들의 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과거에 궁전건축, 불사건축, 서원건축 등의 고급 건축에 참여하였던 건축기술자들이 일반 상류 계층의 주택 건축 조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써 전체적인 건축기술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에 따라 증대되는 주거건축의 기능적 필요와 형태적,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발생한 여러 가지 생활상의 필요와 요구가 건축적으로 공간의 확장과 분화라는 합리적 해결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사 노동 공간의 발달

뒷마당은 경기지역 주거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여성의 작업 공간이다. 뒷마당은 안채의 뒤편에 위치하여 안방-뒷마당-부엌으로 이어지는 가사노동 공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사 대상 가옥 8채 중에서 정영대 가옥에서만 뒷마당의 존재가 불확실하였고, 나머지 주거에서는 신분, 계층에 관계없이 뒷마당을 중심으로 가사 노동 공간이 집중되어 있었다.<표 4>

안방의 후면에는 예외 없이 뒷마루 혹은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어 안방과 뒷마당의 밀접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안방의 내부성격을 지닌 뒷간이 존재하고 외부로 다시 쪽마루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홍승인 가옥). 뒷마루, 쪽마루는 방과 뒷마당의 출입을 원활하게 하는 중간 동선의 기능과 함께 노출되어 있는 수장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표 4> 가사 노동 공간 조사표(뒷마당 중심)

가옥명	뒷마당의 구성					폐쇄도 (답장)	비고
	뒷마루/쪽마루	장독	우물	부속채	부엌크기		
정용채	뒷마루	○	○	광	3칸△	△	안채변형 (뒷마당 중심)
박희석	쪽마루	○	○	×	15칸△	△	나무올타리
정원채	뒷마루	○	○	광	3칸이상	○	부엌확장 (뒷마당 중심)
홍승인	뒷간/쪽마루	○	○	×	3칸	○	
김정식	쪽마루	○	○	광	25칸	○	
정영대	뒷마루	×	×	광	2칸	○	뒷마당 미발달
김영구	쪽마루	○	○	내측	3.5칸	◎	아랫방과 연결
여경구	뒷마루	○	○	내측	3칸	◎	

장독대와 우물은 식생활을 위한 주부의 가사 작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장독대와 우물, 부속채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퇴락한 경우가 많았으나 대부분의 가옥에서 흔재 흔적이 나타났다.

벧광, 김치광, 찬광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속채는 뒷마당의 기능적인 배치 관계를 가능하게 하였는데, 조사된 가옥의 절반 정도에서 관찰되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옥의 경우도 과거에는 다양한 형태의 부속채가 존재했을 것

26)전봉희, 위의 논문, pp.199.

23)전봉희, 조선후기 주거사에 있어서 겹집화 현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10호 통권96권, 1996.10, p.200.

24)나중현, 해방이전에 이어진 경기도 지역의 농촌주거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대석론, 2000, pp.57.

25)최일, 위의 논문, p.41.

으로 추측되었다.

안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부엌공간의 확장과 기능적인 분화현상을 들 수 있다. 부엌의 넓이는 대체로 2칸 이상이며, 마당 쪽으로 퇴를 내어 나무간으로 확장, 분화시키고 부엌내부에 부엌광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한다. 또한 조선후기의 건축기술의 발달로 건축물의 상, 하부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였는데,²⁷⁾ 대부분의 조사대상 가옥에서 부엌과 안방 사이의 공간에 다락을 설치하였다. 또한 가사노동의 동선을 단축시키기 위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부엌에서 뒷간을 통해 직접 방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설치하거나,(정용채 가옥, 홍승인 가옥, 김정식 가옥) 나뭇간의 설치를 통해 부엌 뒷문에서 부속채에 이르는 동선 영역을 내부화하고 있다.(정원채 가옥)

뒷마당은 안채와 부속채 그리고 담장에 의해서 폐쇄적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정용채, 정원채 가옥의 부속광은 안채의 몸체에서 확장되어 뒷마당을 감싸는 형태로 지어져 기능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뒷마당의 폐쇄성을 높여 여성의 사적인 공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조선 후기 사회의 변동과 관련한 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중 현상은 일반 민가 뿐만 아니라 중상류 주거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사 대상 가옥에서도 신분, 계층에 관계없이 뒷마당을 중심으로 장독대, 우물, 부속채 등의 가사노동 공간이 집중되어 있어 부엌 공간의 확장 현상과 함께 동선의 합리화를 통한 가사노동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뒷마당은 여성의 독립적인 생활공간으로 발전하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내외사상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경기지역 중상류 주거에서 나타나는 뒷마당의 발달은 당시의 신분제도의 와해와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나타난 공간의 집중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안마당

조사 대상 가옥의 안마당은 사랑마당과 통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적 영역이었던 안마당은 보다 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며, 사랑채와 안채를 연결하여 가족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된다. 이것은 안마당을 대신하여 뒷마당이 여성중심의 공간으로 발달하는 원인이기도 하다.<표 5>

<표 5> 마당의 분화(○는 안마당의 집중화 현상을 나타냄)

가옥명	마당의 분화				비고
	바깥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뒷마당	
정용채	○	○	○(여성중심)	○	사대부가
박희석	○	◎통합(가족중심역할)		○	부농주거
정원채	○	○	◎(가족중심)	○	부농주거
홍승인	○	○	◎(가족중심)	○	부농주거
김정식	○	◎통합(가족중심역할)		○	부농주거
정영대	○	○	○(여성중심)	△	사대부가
김영구	○	○	◎(가족중심)	○	세도가
여경구	○	○	○(여성중심)	○	사대부가

27)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87, p.230.

외부공간은 중상류 계층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부농주거의 사랑채는 문간채·부속채와 통합되어 복합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바깥마당이 사랑마당의 역할을 흡수하고 안마당이 가족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된다.(박희석, 김정식 가옥) 마당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안마당을 중심으로 각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정원채, 홍승인 가옥)

반면에 세도가층, 사대부층의 경우는 바깥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뒷마당 등으로 마당의 분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특히 안마당의 경우 여성 중심으로 계획되어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정용채, 정영대, 여경구 가옥) 이것은 17세기 이후의 사회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안채 구성형식의 일반적인 형태로 추측된다.²⁸⁾ 하지만 세도가층, 사대부층의 주거에서도 안마당이 여성 전유(專有)의 폐쇄적인 공간이 아닌 가족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김영구 가옥)

조선 후기 경기지역 중상류주거의 안마당은 사랑채와 안채를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 공간이 되어 서로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여성 중심의 폐쇄적 공간에서 점차 가족 중심의 공간으로 개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것은 노비의 감소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노동력 가중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안마당을 중심으로 동선의 단축·집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4. 결론

조사 대상 가옥의 안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의 필요에 따라 공간이 확장, 분화하며, 둘째 가사 노동 공간으로서 뒷마당이 발달하고, 셋째 안마당은 사랑채와 안채를 연결하여 가족 중심의 공간으로 발전하게 된다. 주거공간의 특징과 사회, 문화적 요인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안채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확장·분화는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건축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고, 단위 공간 내에서 공간의 확장·분화는 동선의 단축을 의미한다. 이는 노비의 급감으로 인한 가족 노동력의 확대 요구 및 그에 따른 가족 수의 증가, 집안에서의 가족 노동력의 절감 등의 요구에 기인한다. 뒷간을 이용한 집집화현상도 가족수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적 해결 방법이었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조선 후기 사장(私匠)의 활성화로 건축기술의 상향적 평균화를 가져왔고 공간의 확장·분화를 기술적으로 가능케 하였다.

2. 여성의 가사 활동 영역이 확대되며,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주거 근대화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가사 노동 공간은 뒷마당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장독대, 우물, 부

28)김중현, 주남철, 앞의 논문, p.88.

속채 등이 집중되어 있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뒷마당은 여성의 독립적인 생활공간으로 발전하여 폐쇄적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뒷마당의 발달은 신분제도의 와해와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뒷마당의 공간 활용은 지역별, 시기별, 계층별로 추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안마당은 사랑채와 안채를 연결하며 주거 공간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가족구성원의 노동력 가중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안마당을 중심으로 동선의 단축·집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전에는 여성의 독립된 공간이었던 안마당과 비교해보면 주거의 발전 방향이 경제적 논리에 지배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계 가족 사회로 발전하면서 가족간의 프라이버시 개념이 약화된 것도 안마당이 발달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Amos Rapoport, *House and Culture*, 이규목, 譯, 열화당, 1985.
2. 강만길, 고쳐 쓴-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3.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대출판부, 1973.
4.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I], 지식산업사, 1995.
5. 안병태, 한국 근대 경제와 일본제국주의, 백산서당, 1982.
6.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1,2, 역사비평사, 2000.
7. 한국경제사학회, 한국사시대구분론, 을유문화사, 1995.
8. 김영모, 조선지배층연구, 한국문화연구소, 1977.
9. 최일, 조선 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10. 전봉희,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11. 전봉희, 조선후기 주거사에 있어서 겹집화 현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10호 통권96호 1996.10.
12. 이상현, 18C부터 1910년까지 한국건축의 변천에 대한 사적 고찰, 서울대석론, 1984.
13. 김봉렬, 조선 후기 한옥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론, 1982.
14. 나종현, 해방이전에 지어진 경기도 지역의 농촌주거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대석론, 2000.
15. 이강민, 초기근대 전남지역 부농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론, 2001.
16. 김동욱, 조선시대 영조조직 연구, 건축학회지, 1983.6.
17. 김종현·주남철, 한국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문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2호, 1996.2
18.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3.
19.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94.
20. 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87.
21. 경기도사 편찬위원회,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출판사, 1997.
22. 경기도사 편찬위원회, 경기도의 어제와 오늘, 경기출판사, 2001
23. 유승용, 민가연구의 상황, 대한건축학회지 33권 2호 통권147호 1989.3.
24. 송주현, 문화재로 지정된 전국 주택건조물 현황, 대한건축학회지 33권 2호, 1989.3.
25. 조성기, 한국 중부형 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3호, 1991.6.
26. 石毛直道, 住居空間の人類學, 龐島出版會, 1971.
27. 홍형욱, 한국주거사, 민음사, 1997.

<접수 : 2003. 10. 31>